

# 충남 농촌의 미래 이슈 및 변화 전망

(본고는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조영재 I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요약>

### 충남 농촌의 미래 이슈 및 변화 전망

#### 도농복합화 - 농촌공동화 현상의 동시 진행

도시화·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향후 대도시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농촌의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도농복합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변화는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신주거문화 형성, 귀농·귀촌의 증가, 생태·로컬·여유·가치를 중시하는 대안문화 형성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반면,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 벽·오지 지역 등 소외된 마을을 중심으로는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다거점·직결형 농촌 정주체계로의 변화

교통의 발달, 농촌과 도시의 구분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읍·면소재지가 갖고 있었던 거점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이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로 흡수될 것이다.

또한,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에서 충족하기 힘든 복지 및 여가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중심거점마을 또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정주체계에서 다거점·직결형 정주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향후 농촌에는 기존 농업인을 포함하여 귀농·귀촌인, 비농업인, 도시인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업생산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됨과 동시에 농촌의 경관 및 어메니티를 중시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도시 주변지역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부터 새로운 전원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유입됨으로써 농어업인력의 확보 및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가 창출되고, 아울러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비중이 늘어 생태, 로컬, 여유, 가치 등을 중시하는 대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가정이라 불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 농촌 어메니티 중시 및 ‘행복’ 중시 가치관 확대

현재의 농촌은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면 미래 농촌은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즉, 농업·농촌이 지닌 사회·경제·환경적인 다면적 기능과 농어촌 어메니티의 가치가 중시되고,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도농교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 했던 경향에서 상대적 격차해소 보다는 개개인의 현재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이와 함께 복지분야에서도 종합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와 체감형 복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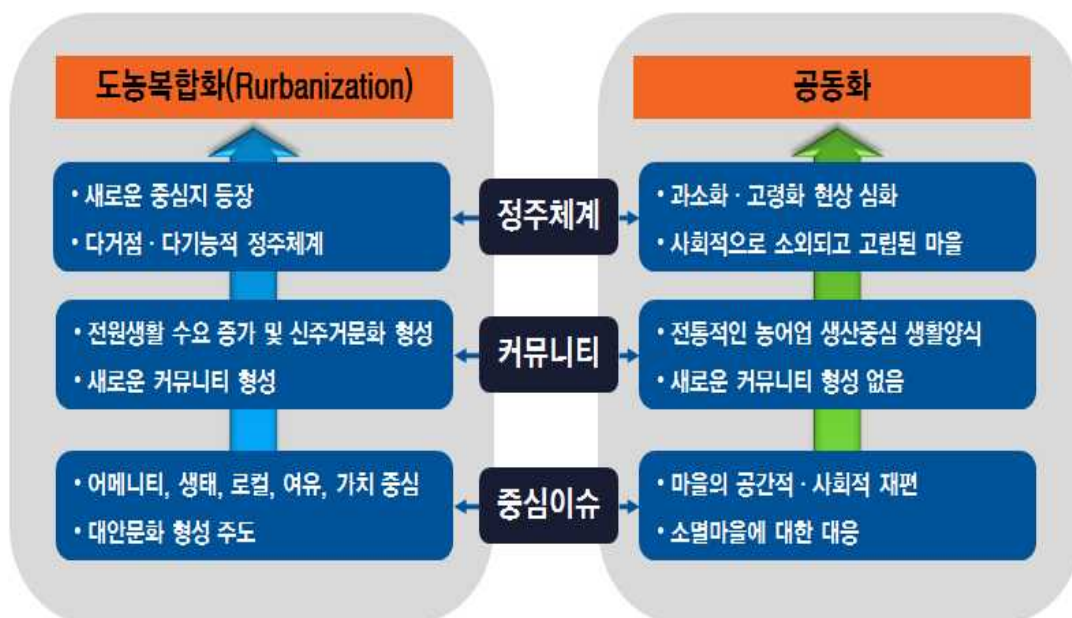
## 1. 도농복합화 - 농촌공동화 현상의 동시 진행

### 대도시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도농복합화 현상의 가속

- 대도시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농어촌의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국토연구원(2009)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토의 95%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2050년에 이르면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러바니제이션 현상은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신주거문화 형성, 귀농·귀촌의 증가, 생태·로컬·여유·가치를 중시하는 대안문화 형성에 기인할 것임

###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

- 도농복합화 현상에 반면,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 벽·오지 지역 등 소외된 마을을 중심으로 는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임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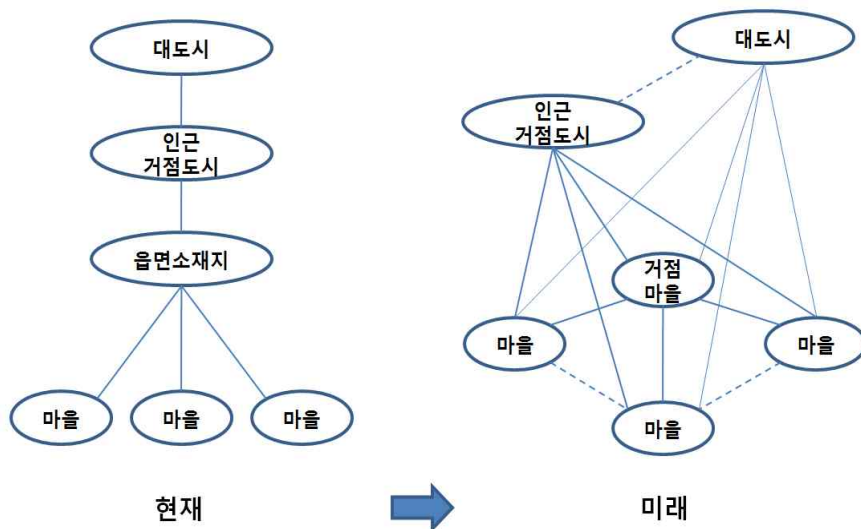
<그림 1> 농어촌의 양극화 현상 전망

## 농촌의 공간적·사회적 재편 필요성 증대

-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과 함께 한편으로는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임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정정책이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 및 마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과소·고령마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갈수록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이 등장하게 될 것임
-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과소·고령마을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2. 다거점·직결형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

###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2014

<그림 2> 농어촌 정주체계의 변화 전망

- 교통의 발달, 농촌과 도시의 구분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현재 ‘마을 - 읍·면소재지 - 인근 거점도시 - 대도시’등으로 구성된 정주체계가 무너질 것이고, 특히 전통적으로 읍·면소재지가 갖고 있었던 거점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이 인근 거점도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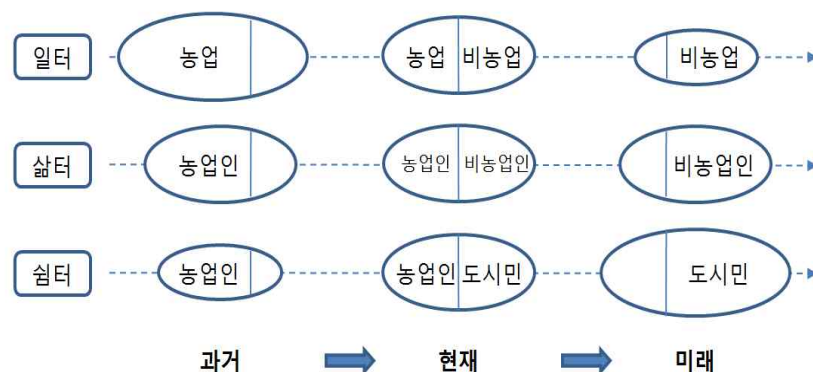
대도시로 흡수될 것임

- 한편,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에서 충족하기 힘든 복지 및 여가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중심거점마을 또는 커뮤니티가 등장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정주체계에서 다거점·직결형 정주체계로 전환될 것임

### 3.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 새로운 커뮤니티 및 전원주거문화 형성

- 귀농·귀촌 및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구성원이 기존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포함하여 귀농·귀촌인, 비농어업인, 도시인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
- 즉, 기존의 전통적인 농어업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재편될 것이며, 지역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이슈, 관심사도 훨씬 다양해 질 것임
- 또한, 기존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됨과 동시에 농어촌의 경관 및 어메니티를 중시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도시 주변지역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부터 도시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전원주거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임
- 특히, 산업과 정주, 문화, 휴식공간 등이 공존하는 동호인마을, 은퇴자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생활공간의 조성사례가 늘어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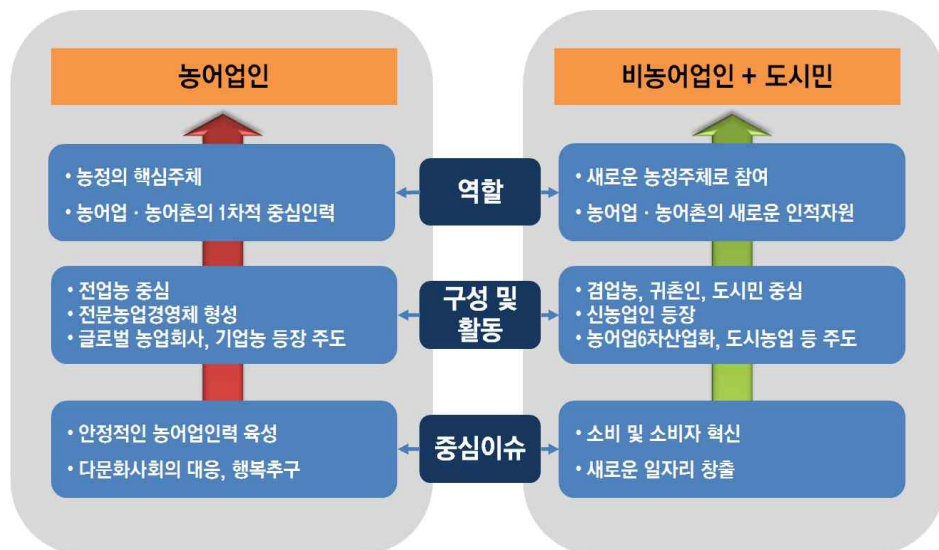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3>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기능의 변화

## 비농업인·도시민 등이 농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확대

- 기존의 농어업인은 지속적으로 농정의 핵심주체로 농어업·농어촌의 1차적 중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전업농 중심의 전문농업경영체 형성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인력의 확보 및 육성,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농업인 지위 향상, 사회복지 및 행복추구 등이 중심이슈로 부각될 것임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겸업농, 귀촌인 등), 도시민 등이 새로운 농정주체로 등장할 것이며, 이들은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비농어업인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신농업인의 등장과 농어업6차산업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주도할 것이며, 소비 및 소비자 혁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중심이슈가 될 것임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2014

[그림 2-11] 농촌 구성원의 확대 전망

## 농촌의 인적자원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 귀농·귀촌인구는 현재의 추세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며,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유입됨으로써 농어업인력의 확보 및 농어촌 활성화와 함께 아울러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비중이 늘어 생태, 로컬, 여유, 가치 등을 중시하는 대안문화가 형성될 것임

<표 1> 전국 귀농인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명)	9,597	17,464	19,657	18,825
읍부(명)	2,097	3,991	4,261	4,173
면부(명)	7,500	13,473	15,396	14,652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년도

- 농어촌 지역은 다문화가정이라 불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2030년경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하게 될 것임

<표 2> 전국 다문화 농어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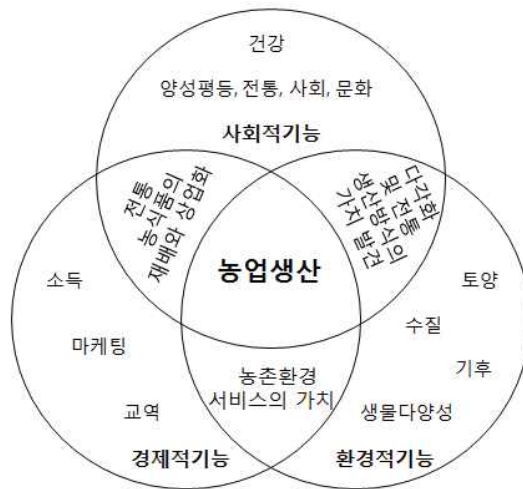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	다문화 농가(가구수)/비중(%)	14,384 (1.2)	14,794 (1.3)	14,952 (1.3)
	다문화 농가 인구(명)/비중(%)	63,356 (2.1)	66,081 (2.3)	67,040 (2.4)
어가	다문화 어가(가구수)/비중(%)	1,013 (1.6)	988 (1.6)	1,011 (1.7)
	다문화 어가 인구(명)/비중(%)	4,261 (2.7)	4,121 (2.7)	4,236 (2.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년도

#### 4. 농촌 어메니티 중시 및 ‘행복’중시 가치관 확대

##### 농촌 어메니티 및 다기능성(가치) 중시

- 이제까지 농어촌은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되었다면 미래 농어촌은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평가될 것임
-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식량생산기능’뿐만 아니라 ‘국토보전의 기능’, ‘자연환경보전의 기능’, ‘전통문화계승의 기능’, ‘건강·휴양·여가의 기능’, ‘정신적·심미적 기능’등 사회·경제·환경적인 다면적 기능과 농어촌 어메니티의 가치가 중시되고,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도농교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임
- 이러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재발견이 곧 농수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기능 농업의 정착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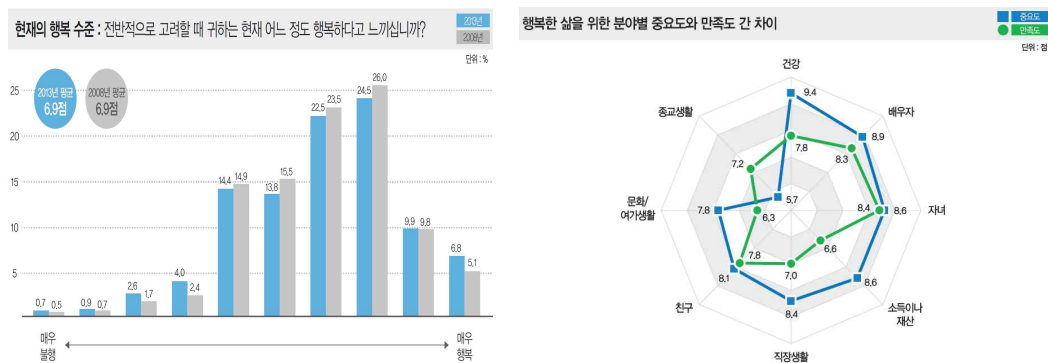


자료: 정현희 외,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 충남발전연구원, 2013

<그림 4> 다기능 농업의 효과

## 비물질적 측면의 ‘행복’ 중시 가치관 확대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9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와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9.4점), 배우자(8.9점), 자녀(8.6점), 소득이나 재산(8.6점)의 순서로 나타나 물질적·경제적 여유보다는 신체적·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선호하고 있음
- 또한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 했던 경향에서 상대적 격차해소 보다는 개개인의 현재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복지분야에서도 종합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와 체감형 복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조사결과

[그림 2-14] 국민 행복 수준 및 분야별 중요도·만족도